

전시 소식

▷김진아 개인전 ‘야생의 이주민이 나타났다!’=스튜디오126 하반기 입주 작가전. 이주를 관계와 감각의 문제로 확장해 공동체와 개인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계속 조정하는 존재의 상태를 펼쳐놓는다. 아카이브, 설치, 관객 참여로 구성했다. 이달 15일까지.

▷양승정 개인전 ‘섬, 잇다’=패션디자인을 공부한 작가는 삶의 방향을 고민하던 중 자수에 깊이 몰입하게 됐다. 그에게 자수는 표현의 재료를 넘어 상처를 꿰매고 과거를 봉합하는 행위다. 이달 11~16일 돌담갤러리.

▷박용운 개인전 ‘망의 기억 생명의 뿌리를 찾아서’=제주에 터를 잡고 활동 중인 작가의 깊은 내면과 제주 자연이 호흡하는 신작들을 선보이는 30번째 작품전. 한지를 찢고, 겹치고, 비우고, 관통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거치며 자연이 간직한 생생과 소멸, 비움과 연결의 궤적을 풀어냈다. 이달 12~21일 담소창작스튜디오 갤러리.

▷임경아 개인전 ‘부채의 구조’=‘사라진 이후에도 무엇이 남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작업. 삼베, 닥펄프 등을 이용해 사라진 이후 비로소 드러나는 것, 그리고 변형된 채로도 우리 안에 지속되는 것에 관한 탐구에 나섰다.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갤러리 애플.

▷‘2026년 원도심 예술공간 전시실 대관공모’ 선정 김현갈·이지원 개인전=김현갈 개인전 ‘안부를 묻다’에서는 삶의 터전 제주에서 마주한 풍경과 감정을 수채화에 담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달 20일까지 산지천갤러리 3층. 이지원 개인전 ‘자아편승기법’에는 손뜨개·봉제 섬유 조형 작품이 펼쳐지고 있다. 20일까지 산지천갤러리 4층.

▷제주공예문화협회 제2회 회원전 ‘일상 속의 공예-나를 위한 공간’=8명의 작가가 참여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순회전을 갖는다.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갤러리 레미콘, 이달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토·일요일 휴관). 오프닝은 12일 오후 1시 갤러리 레미콘. 이달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플라멩코도 열린다.

주말, 여기 제주 첫 전국장애인체전 연계 미술전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두의 전시로”

도문화진흥원 ‘다시, 보는 법’ 장애·비장애 작가 11명 초대 1·2전시실에 회화·설치·공예 서로 다른 몸과 감각의 ‘보다’

“눈으로만 감상해 주세요.” 전시장에서 흔히 보는 안내 문구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벽에 걸리거나 바닥에 설치된 작품 일부를 손으로 만질 수 있다.

10일 오전 제주문화회관 1전시실. 한 관람객이 돌탑처럼 높다랗게 쌓아 올린 작품 앞에 쏘그려앉아 돌맹이 모양의 도자기 표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양형석의 ‘소망의 정원’ (2026)이다. 양 작가는 작품 제작 과정과 배경을 담은 전시 설명문 말미에 이렇게 썼다. “지금 제 작품을 보고, 만지고, 느껴보시면서 예술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체·설치 작업을 하는 함현영 작가도 손끝으로 만날 수 있는 ‘껍데기 욕망’ (2026)을 출품했다. 함 작가는 인조 가죽을 자르고 실과 바늘로 꿰매는 손바느질 등으로 부드러운 날카로운 동시에 표현한 이 작업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지금 내가 세상과 마주하기 위해 어떤 마음의 방어막을 두르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이 제주에서 처음 열리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연계해 마련한 기획전 ‘다시, 보는 법’. 이날 막이 올라 이달 24일까지 문예회관 1·2전시실에서 이어지는 이 전시는 장애 예술가들의 ‘장애 극복’ 서사 대신에 대상 작품을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시대 미술로 바라보며 누구든 편안하게 회화, 공예, 설치 작품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참여 작가는 강성도·김석현·김은설·김혁중·백주순·성정자·양형석·이용원·최정우·함현영·현석민 등 도내의 장애·비장애 작가 11명. 작가별 작품 내용을 쉽게 풀어낸 커다란 안내판, 작업 재료 등을 보여주는 투명 상자, 의자가 놓인 음성 안내 헤드셋과 점자 자료를 배치하는 등 모두를 위한 전시로 꾸몄다.

전시실 입구에는 기획전 취지를 소개하는 수어 영상

이 흐른다. “누군가에게는 듣는 일이 보는 일이 될 수 있고, 만지는 일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보는 법’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감각과 방식으로 세상을 만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차이를 함께 마주해 보는 자리입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손끝으로 만날 수 있는 함현영의 ‘껍데기 욕망’. 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제주민예총 ‘청소년 4·3 문화예술제-우리의 4·3은 푸르다’=제주 4·3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행사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직접 질문하고, 예술로 표현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참여형 문화예술제’로 마련했다. 이달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주청소년의거리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체험 부스가 펼쳐진다. 오후 2시30분부터는 제주학생

문화원 대극장에서 풍물, 밴드, 뮤지컬, 랩, 영상, 연극,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청소년들이 제주 4·3의 역사와 평화·인권의 가치를 자유롭게 표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청소년오케스트라 2026 힐링콘서트=청소년 단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연주 실력을 보여주는 무대.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수석 단원인 비올리스트 김수영, 제주제임버오케스트라 수석 단

원인 첼리스트 박소현, 소프라노 강정아가 함께한다. 이달 13일 오후 4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육필문학관 제주 ‘노회정 시인의 시 세계를 낭독으로 감상하고 문학과 육필이 지닌 가치에 대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리. 이달 19일 오후 2시. 노 시인은 2004년 5월 인천 강화도에 사립 문학관인 ‘강화육필문학관’을 설립했다.

함께 걸어온 시간, 다시 시작하는 노래

양성미 창작 콘서트 ‘빛으로’ 음악 여정 30년 의미 담아 오는 20일 아트락소극장



‘돌담’, 강정평화대행진과 함께한 ‘모이자! 평화의 대행진’, 제주섬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잠수함’, 제주평화인권창

제주 싱어송라이터 양성미(사진)가 음악 활동 30년을 기념하는 무대를 갖는다. 이달 20일 오후 5시 아트락소극장(제주시 연신로 156)에서 열리는 창작 콘서트 ‘빛으로’ 다.

양성미는 대학 시절 민중노래패를 시작으로 서귀포시립합창단, 민중노래패 ‘정촌’에서 활동했다. 이후 인디밴드 ‘소금인형’을 결성해 창작자로서 음악 세계를 펼쳐 왔다. 이날 공연은 제주에서 만난 사람과 풍경, 아이들의 맑은 마음, 기억해야 할 역사와 평화 등을 그린 창작곡으로 꾸민다. 작은 촛불들이 하나둘 모여 임축한 시대를 헤쳐 온 풍경, 서로를 향해 내민 연대의 손길 등을 떠올리며 만든 곡들이 적지 않다.

공연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과 동심을 표현한 ‘오름에 올라’, 제주 4·3의 기억을 담은 ‘진아영 할머니’, 다름을 넘어 평등한 세상을 말하는 ‘지구 끝 어디에서라도’, 제주를 노래했던 청춘의 시간이 흐르는

작가요제 대상 작품인 ‘너를 기다리며’ 등이다. 이번 공연의 의미를 더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밝히려겠다는 타이틀 곡 ‘빛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심는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도 들을 수 있다.

김영태(보컬·건반), 밴드 제로필드(리피(아쿠스틱 기타), 강형훈(일렉 기타), 케이진(베이스), 유수빈(건반), 변종욱(드럼))가 함께 출연한다. 관람료 무료(사전 예약).

양성미는 “돌아보면 음악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제주가 있었고, 노래를 계속할 수 있었던 힘은 사람들에게서 왔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함께 걸어온 사람들과 그 빛을 나누고, 다시 노래를 시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해녀문화 인류유산 10주년 기념 포럼·해녀축제 잇따라 10~11월엔 해녀주간 운영

올해는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이 되는 해. 이를 기념하는 포럼과 해녀축제가 잇따른다.

제주도는 이달 19~20일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 일대에서 제19회 제주해녀축제를 개최한다. 축제 주제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년의 발자취, 숨비소리에 실어 보낸 고백’.

이 축제는 해녀국가와 거리 행진으로 막을 올린 뒤 제9회 해녀의 날 기념식과 공연, 경연, 체험, 전시 등이 이어진다. 축제 기간 숨비가요제, 현직 해녀에게 삶의 이야기를 듣는 불턱토크쇼, 해녀 물질 체험, 아간 디제이 공연 등 5개 부문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앞서 제주도는 18일 오후 2시 폐종글래드 제주에서 ‘살아 있는 문화유산,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포럼을 연다. 이날 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변화하는 세계 속의 살아있는 유산’, 가네코 타다시 세계관광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소장의 ‘공동체와 자연이 공존하는 해양유산의 미래’에 대한 기조연설을 들을 수 있다. 이어 ‘세계는 제주 해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다음 10년, 제주해녀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 현직 해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준비했다.

제주도는 포럼에 이어 10월부터 11월까지 해녀의 삶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해녀주간 프로그램을 펼친다. 총 16회에 걸쳐 해녀의 밭상, 해녀 스테이, 물질 체험, 전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추석맞이 특별 할인, 지금부터 준비해요

노비타비데 역대급 할인

2026. 8. 24 ~ 9. 30

※ 무료 설치 | 무료 수거 | 비데 필터 증정 (2개) ※

자세히 보기 ▲

자세히 보기 ▲

기간 한정 이벤트

전국 대리점 단독 노비타 비데 보상 판매

2026. 8. 24 ~ 9. 30

노비타 비데 특별할인가제 공 사용 비데 반납 시

무료 수거, 무료 설치

비데 필터 증정 (2개)

살균비데 리모컨형
BD-H700HO

439,000원
389,000원

5만원 할인

#리모컨 #하루두번 자동살균 #세가지수류 #다이아리무브 #회전노출 #강력방수(리모컨IPX7/본체IPX5)

슬림비데 컴팩트 리모컨형
BD-GCS4-03ERA

3년 무상AS

304,000원
264,000원

4만원 할인

#3년무상AS #리모컨 #슬림디자인 #미스트세정 #누전차단기능 #강력방수(리모컨IPX7/본체IPX5)

라인핏비데
BD-AFE50N

3년 무상AS

299,000원
229,000원

7만원 할인

#3년무상AS #슬림디자인 #공기정화세정 #강력방수(IPX5/조직원 IPX7)

스케일링™ 살균비데 자동 개폐+물내림형
BD-DPS13-010RB

759,000원
679,000원

3년 무상AS

8만원 할인

#3년무상AS #리모컨 #스케일링 #자동개폐 #자동물내림 #UV살균 #3중살균 #강력방수(본체IPX6/리모컨IPX5)

스케일링™ 살균비데 기본형
BD-DPS11-010RB

619,000원
569,000원

3년 무상AS

5만원 할인

#3년무상AS #리모컨 #스케일링 #UV살균 #3중살균 #강력방수(본체IPX6/리모컨IPX5)

살균비데 일반형
BD-H500EO

350,000원
310,000원

4만원 할인

#매일자동살균 #미스트세정 #강력방수(IPX5)

구입문의

제주위닉스 총판 및 A/S센터 · 제주노비타 총판 및 A/S센터

064)758-0990~1 제주시 연삼로17(연동)

삼성 서비스센터

신광로터리 ● 빙스 ● 요양병원 ● 신제주로터리 ● 마린나호텔

WINIX novita

▲ 공항

마린나사거리 ● 마린나호텔